삼보회 108사찰순례, 9년만에 회향

9월 20일 양산 미타암서 회향법회 봉행

동국대에 장학금 1000만원 전달
라오스에 한국어학교 설립 포부
3차 사찰순례 10월 8일 봉정암서
정분남 삼보회장 "순례는 수행"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전국사찰을 순례하며 기도 수행을 이어오고 있는 108사찰 순례단 삼보회(회장 정분남 · 이하 삼보회)가 9년 동안 이어온 108사찰 순례를 회향했다.

삼보회는 9월 20일 양산 미타암에서 '삼보회 108사찰 순례 2차 회향 및 장학금 전달식' 을 개최했다.

회향 법회는 △개회 △삼귀의 △반야심경 △내빈소개 △108사찰 순례 경과보고 △축사 △회장 인사말 △개근상 시상 △장학금 전달 △법문 순으로 진행됐다. 법회에는 미타암 주지 동진 스님을 비롯해 정분남 회장 등 삼보회 회원과 봉사자 등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정분남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순례는 곧 수행"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마음을 아는 것이다. 전국의 사찰에서 산 새 소리, 바람 소리를 들으며 지금 이 순간을 아는 것이 곧 도이고 부처임을 깨닫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순례 수행은 오늘 불교 인재를 위한 밑거름으로 회향한다. 앞으로도 이 원력은 끊임없이 이어질 것이며 국내 인재 뿐 아니라 세계를 위한 원력으로 이어 질 것"이라고 밝혔다.

미타암 주지 동진 스님은 "정분남 회장은 선원 결제마다 스님들께 신발을 공양 올려왔다. 오랫동안 공양 공덕으로 인연이 되었다"며 "평소 보시바라밀의 삶으로 회향하신 그 인연공덕으로 오늘 108번째 순례 사찰 회향처가 미타암이 되어 기쁘다. 앞으로도 순례의 기쁨을 알고 도반의 힘으로 나날이 성장하는 순례단이 되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삼보회는 9월 20일 양산 미타암에서 '삼보회 108사찰 순례 2차 회향 및 장학금 전달식' 을 개최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1차부터 2차까지 순례에 빠지지 않고 동참한 회원에게 개근상을 전달하며 소감을 듣는 시간도 마련됐다. 개근상은 이성희, 여소현, 성희강, 황성희 불자가 수상했다. 이들은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할 수 있어 감개무량하다"며 "회장님과 도반들이 함께하며 이끌어 준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삼보회는 2부에서 동국대 WISE 캠퍼스 대학원에 재학 중인 법열 스님 등 학생 9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장학금은 각 100만 원 씩 총 1000만 원이다. 삼보회는 2013년 3월 동국대WISE캠퍼스 삼보장학회를 설립하고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장학회 설립 이후 학생 50명에게 장학금 5000여 만원을 수여했으며 매월 30만 원을 정기적으로 전달해 학교 발전을 돕고 있다.

정분남 회장은 "2012년도에 학교에 가서 보니 많은 스님들과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고 원력을 세우게 되었다"며 "종립학교 동국대의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삼보회는 매년 새해를 맞아 통도사, 해인사, 송광사 등 삼보종찰 방문을 시작으로 매월 음력 26일 전국의 사찰을 찾는 순례를 이어가고 있다.

1차는 논산훈련소 법당 불사 원력으로 회향했으며 2차는 2013년 1월 입재, 2022년 9월 20일 회향했다. 3차는 동국대 인재불사와 라오스 한국어학교 건립 불사 원력 하에 10월 8일 봉정암 순례로 입재한다.

삼보회는 순례기간 봉암사 대중공양을 비롯해 함양 용추사, BBS불교방송, 백양사 극락전 개금 불사, 대구 여래사, 호국 백마사, 서울 도안사 불사 등을 후원했다. 또 강원도 화재 및 포항 지진 재난 후원 및 초읍 어린이 대공원 자장면 후원 등 나눔활동을 펼쳤다. 포교 활성화를 위해 매년 경전을 담은 성지 순례단 책자 1000권 제작, 순례 초심자에게 법보시하고 있다. 법보시 기금은 경조사를 맞은 삼보회 회원들의 자발적인 동참과 깨와 참기름 수익금으로 마련한다.

정분남 회장은 "지나온 나눔 활동을 반추해보면 부처님 가피 외엔 설명할 길이 없다. 순례는 복의 씨앗을 뿌리고 다니는 일이다.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갈 것"이라 말했다.

동고당 문성 대종사 독립유공자 포상받아

9월 16일, 해인정사 대적광전서 전수식 봉행

해인정사(주지 수진)가 9월 16일 경내 대적광전에서 '동고당 문성 대종사 독립유공자 포상 전수식' 을 봉행했다.

동고당 문성 대종사는 8월 9일 독립유공자로 추서되었으며 국가보훈처는 대통령 표창을 수여하며 포상할 것을 결정했다.

전수식은 △삼귀의 및 반야심경 △국기에 대한 경례 △포상 전수 및 기장 봉정 △헌향 및 헌다 △경과보고 및 행장 소개 △인사말씀 △포상 배경 설명 △축사 순으로 이어졌다. 전수식에는 문성 대종사 상좌인 해인정사 주지 수진 스님과 상좌 스님들이 참석했으며 강석두 국가보훈처 공훈관리과장, 이갑준 사하구청장, 최인호 국회의원 및 해인정사 신도들이 참석했다.

해인정사 주지 수진 스님은 인사말에서 "은사스님의 공적이 늦게라도 인정되었다. 독립운동을 위해 옥고를 치른 지 100년 만"이라며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지금이라도 상좌의 도리를 한 것 같다. 앞으로 독립운동 역사에 관심을 가질 것이며 지역 독립유공자 후손들과 더불어 이 땅의 평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인정사는 9월 16일 경내 대적광전에서 '동고당 문성 대종사 독립유공자 포상 전수식' 을 봉행했다.

문성 대종사는 1897년 2월 6일 경북 영천군 북안면에서 출생했다. 1907년 10세가 되던 해 부친과 통도사를 참배하던 중 저녁 예불 소리를 듣고 무상함을 느껴 다음 해 출가했다. 1911년 4월 15일 경남 고성군 옥천사 서응 스님을 은사로 사미계를 수지했다. 1920년 조선불교청년회에 가입했고 다음 해 해인사에서 3.1만세운동을 주도했다. 당시 일본 경찰을 격퇴, 김천 수도암으로 피신했다. 이후 교원 및 강사로 활동하며 인재양성에 앞장섰으며 금강산 마하연, 함경도 보현사, 통도사, 해인사, 옥천사 등에서 안거 정진했다. 옥천사에서 안거 정진하던 중 1935년 4월 29일 깨달음을 얻고 '임발청산장향기(臨發靑山藏香氣) 해저노용함진주(海底老龍含眞珠) 향기진주수미로(香氣眞珠雖未露) 변부삼천상방광(邊覆三千常放光)' 라는 오도송을 읊었다.

1947년 고성 옥천사 백련암에서 6년결사 중 한국전쟁이 발발했고 1951년 옥천사 주지였을 당시 국내 최초 종군 포교사로 철원에서 활약했다. 불교정화 활동 이후 옥천사 초대 주지, 대한불교조계종 재무부장, 마하사 주지, 통합종단 초대 감찰원장에 취임했으며 이후 감찰원장을 세 번 더 역임했다. 1974년 감찰원장 사임 후 1978년 대한불교조계종 초대원로위원으로 추대, 1994년에는 대한불교조계종 초대 명예원로위원으로 추대됐다. 1997년 7월 10일 세수 100세 법납 86세로 '석가강생작야몽(釋迦降生昨夜夢) 달마도강몽견공(達磨渡江夢見空) 약인문아진소식(若人問我盡消息)금용은사살인중(金龍銀蛇殺人中)' 라는 임종게를 남기고 열반에 들었다.

특히, 문성 대종사는 친일승려였던 용주사 주지 강대련을 남대문에서 종로 사거리까지 친일 행각을 성토하고 북을 치며 걷게 하는 '명고축출사건(鳴鼓逐出事件)' 을 주도했다. 스님은 이 사건으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후 100년 만에 독립유공자로 추서됐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함께 걸으며 '팔재계' 알아가요"

부산불교연합회, 9월 17일 팔재계 체험 걷기대회 개최

시민들에게 팔관회의 뜻을 자연스럽게 안내하기 위한 '팔재계 체험 걷기대회' 가 9월 17일 부산 어린이대공원 내 둘레길서 열렸다. 이번 걷기대회는 부산불교연합회가 불살생, 불투도 등 8가지 지켜야 할 불교의 계(戒)를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기획했다.

걷기대회에는 범어사 주지 보운 스님을 비롯해 부산불교연합회 수석부회장 영제 스님, 상임부회장 마나 스님, 진광 정사, 사무부총장 성림 스님, 하윤수 부산시 교육감, 이성권 부산시 경제부시장 등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팔재계 테마 부스에는 생명나눔실천운동 부산본부, 삼광사, 금정총림 범어사불교대학 총동문회, 부산불교합창단 등 불교기관 및 신행단체가 대거 참여했다. 걷기대회 이후 열린 어울림한마당에서는 내빈들이 나와 경품을 추첨하여 시민들에게 공기청정기, 세탁 건조기, 제습기 등 풍성한 선물을 전달했다. 또 참가자들이 테마 부스를 돌며 기부한 기부금을 봉사단체에 전달해 의미를 더했다. 어울림한마당은 신유, 남승민 등 인기가수의 무대로 흥겨움을 선사했다.



경품 추첨에 앞서 승재가 내빈들은 각 계율을 먼저 설명하며 가르침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했다.

범어사 주지 보운 스님은 '때 아닌 때 먹지 말라' 는 비시식계(非時食戒)를 설명하며 "지구촌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제대로 먹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다"며 "부처님의 계를 생각하며 어려운 이웃을 한 번 더 생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수석부회장 영제 스님은 '이면좌고광엄려상좌(離眠坐高廣嚴麗牀座)' 를 설명하며 " '높고 넓은 침상에 눕고 앉지 말라' 는 계를 돌이켜보고 여러분이 높은 곳에 있을 때 더욱 몸을 낮추고 겸손하며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베풀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화엄사 전통산사문화재 활용사업 눈길

구례 화엄사(주지 덕문)가 2022년 전통산사문화재활용사업 '화엄세상을 만나다' 를 통해 전통사경과 전통자수, 전통매듭의 최고 장인들이 참여한 전통사찰문화체험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매주 일요일에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먼저 전통사경으로 배우는 화엄석경의 서체와 변상도, 둘째 전통자수로 새롭게 표현하는 각황전 단청문양, 셋째 전통매듭으로 재현해 보는 탱화의 장식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전통자수와 전통매듭 참여자들의 열기는 더하다. 참여한 강습생들이 강사와 함께 '화엄불교복식연구소(소장 강선정)' 를 구성해 창립특별전을 10월 10일까지 진행하고 있다.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매주 일요일 화엄사성보박물관에서 관람객을 대상으로 매듭과 자수 체험 봉사자로 나서고 있다. 자수체험은 11월 말까지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 무료로 진행된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춤과 禪茶가 함께하는 명상축제 눈길

김해 가야문화진흥원, 9월 16일 제6회 명상문화축제

김해 가야문화진흥원(이사장 도명, 여여정사 주지)은 9월 16일 김해문화의 전당 3층 마루홀에서 제6회 명상문화축제를 개최했다.

가야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계승하기 위한 이번 축제는 '춤, 선차(禪茶)와 함께하는 명상' 을 주제로 열렸다.

축제에는 가야문화진흥원 이사장 도명 스님, 미타선원장 하림 스님, 은하사 혜진 스님, 바라밀선원 인해 스님, 붓다발라 스님, 이덕사 동선 스님, 연화사 범일 스님, 미타암 성진 스님 등 지역 스님들과 조강숙 가야국제명상센터장, 자재천 부산여성불자회장, 최경옥 공연예술기획 가야의혼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번 명상축제에서는 무용극 천둥소리, 시낭송극 '허왕후 장군차를 전하다' 를 시작으로 1부 행사 차행법숙우회의 선차시연회 '해운(海雲)' 이 진행됐다. 2부는 명무(名舞)전 (살풀이춤 동래한량춤, 태평무가 공연)이, 3부는 '명상의 원리와 생활 속의 실천, 울림이 되다' 강연이 진행됐다.

이와 함께 김해 바라밀선원에서 가야진흥원 가야국제명상센터 개원 및 현판식도 진행됐다. 또 위촉장 수여식과 인도 붓다가야 수행연구소와의 업무협약식도 열렸다.


9월 16일 김해문화의 전당서 진행된 명상문화축제 모습.

이날 도명 스님은 "500년 가야국의 수도이며 삼국과 함께 공존하며 지내온 김해는 가야불교의 중심지이기도 하다"며 "가야의 정신문화 발전의 중요한 역할을 해온 가야불교를 살펴보는 데 가야문화진흥원이 앞장서겠다. 가야문화를 재정립하고 가야문화 선양에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도명 스님은 "문헌을 통해 가야인들이 자연주의자이며, 화합하는 마음을 지닌 것을 알수 있었다. 이는 당시 마음수행 풍토가 있었기 때문으로 이러한 가야의 옛 정신을 되살리는 데 주력하겠다. 이번 축제가 지친 이들이 쉬어가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발원했다. 붓다발라 스님은 업무협약식에서 "명상은 현대인들의 생활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며 "생활명상을 전개하는 데 가야국제명상센터가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한편, 가야문화진흥원은 이번 명상문화축제 부대행사로 청소년 창작미술 · 글짓기 대회, 위기극복 힐링 프로그램 등을 진행했다. 8월 8일 시작한 부대행사들은 9월 24일 마무리됐다. 이와 함께 '차와 함께하는 명상 '민속춤 체험' '민요 체험' 시, '시낭송 체험' 을 진행한다. 또 10월 15일 오후 1시 가야대에서 가야불교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0507)1352-1958

성낙두 경남지사장

금산사 사부대중 원탁회의 개최

연등축제 관련 심도깊은 논의

조계종 17교구 금산사(주지 일원)와 태공문도회(문장 도영)가 주최하는 제3차 전북불교 백년대계를 위한 사부대중 원탁회의가 9월 17일 전주혁신도시 포교당 수현사에서 열렸다.

'연등축제를 지역 대표축제로' 를 주제로 열린 이날 원탁회의에서는 태공문도회 문장 도영 스님의 격려말씀, 2차 원탁회의 결과 및 후속사업, 토론주제 제안설명, 모둠별 주제토론, 주제토론 결과발표 및 전체토의 등이 진행됐다.

도영 스님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서 조금만 더 노력하면 알차고 감동을 줄 수 있는 축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등축제 TF팀은 토론주제 제안 설명을 통해 상시운영조직 구성, 인재 발굴, 전문성 강화, 전북 대표축제화, 가족 콘텐츠 확대 등에 나설 계획임을 밝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운문승가대학 제51차 총동문회 개최

청도 운문사승가대학은 9월 20일 경내 선열당에서 '제51차 총동문회' 를 개최했다. 이날 총동문회에는 운문사 율주 일진 스님과 주지 운산 스님을 비롯해 총동문회장 동언 스님 등 200여 동문이 참석했다.

신임 동문회장 동언 스님(26기)은 "26기 모든 스님은 부지런히 모교 발전과 동문 화합을 위해 활동하자"며 "소임스님들과 힘을 합쳐 장학금 전달 등 활동을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주지 운산 스님은 "오랜 시간 동문들을 보지 못해 안타까웠다"며 "산중 경내 풀 한포기 돌맹이 하나에 회주 스님의 정성이 담겨있으니 운문의 자부심을 갖고 활동해달라"고 당부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